

출판문화는 자유를 먹고 사는 꽃나무

새 대통령에게 보내는 어느 출판인의 편지

金京熙

知識産業社 대표

역사는 그 시대의 일꾼을 만든다

“사람들이 역사를 만들고, 역사는 그 시대의 일꾼을 만든다”는 말이 성립된다고 한다면, 지난 수년간 그 술한 젊은이들의 ‘합성과 희생, 그를 뒷받침한 더 많은 사람들의 의지’로 하여 1987년 6월의 숨막히는 열기를 가져왔고, 그 열기는 마침내 ‘6·29선언’을 구워냈으며, 그리하여 이 편지가 공개(활자화)될 쯤이면 이 땅에 ‘노태우 시대’가 공식으로 열릴 것입니다.

지금 중앙과 지방의 모든 매스컴, 즉 신문과 잡지는 말할 것 없고 라디오와 그 요술상자인 텔레비전도 예외없이 ‘새시대’ ‘새정부’ ‘새 공화국’을 들먹이며 전환기를 맞는 우리 시대의 문제들에 대하여 각계의 진단과 제언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아마 이 편지를 필자에게 쓰게 한 편집자의 의도도 그러저러한 매체들이 벌이고 있는 유행에 뒤질세라 기획한 일종의 요식행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귀한 지면만 더럽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우리 역사에서 어느 집권자가 여론에 귀를 기울였으며, 더우기 어느 누가 출판인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려 했는지 저는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잡지의 편집자나 필자가 거의 헛된 노력이었거나 하면서도 가냘픈 희망을 걸고 굳이 이 어설픈 몸짓을 해보는 것은, 누가 무엇이라고 하든 이 시절은 백성들이 주인임을 확인하는 시대임에 틀림이 없고, 이 엄연한 사실을 눈감으려 하거나 눈가리려 할 때 그 사람이나 그 집단은 벌써 이 시대의 주역은 아니라는 점에서 ‘보통사람’을 자처하시고 ‘보통사람의 시대’를 열겠다고 자칭하신 귀하의 근래의 여러 주장과 공약이 헛된 것이 되지 않을 것을 믿어보는 심정에서, 외람되이 이 글을 써서 신고자 한 까닭이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보통 출판인’의 목소리

서두가 너무 길었군요. 저는 우리나라 현역 출판인 중에서는 말석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원래 배운 것이 적고 예의작법이 서툴러 여러가지 썰레가 있더라도 너그러

이 접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출판계에는, 해방 후부터 지금까지 그 술한 민족적 혼란기를 겪으면서도 거의 초토 위에서 외줄기 출판문화를 가꾸어 온 존경할 만한 선배출판인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70년대 이래 지난 여름까지 그 숨막히던 시절, 신문인이나 방송인들이 주눅이 들어 백성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 하고 싶은 말을 감히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용감하게 책으로 알려주고 말하게 했던 당돌하고 용기 있는 젊은 출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선배분과 후배들의 치받음을 당해 항상 종종 걸음으로 쫓기고 있는 필자가 귀하께 이 글을 드리게 된 것은, 오직 어정쩡한 중간세대에 속하여 시체말로 ‘보통출판인’의 하나이기에 이 총대를 메게 된 것으로 압니다.

다시 본줄기로 돌아가서 말씀드리자면, 출판은 우리 사회에서 항상 저만치 밀려나 있는 ‘미운 오리새끼’였습니다. 그간의 우리 겨레가 겪은 일들이 너무나 엄청나고 급박하게 돌아갔기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치더라도, 모든 힘 가진 사람들, 비단 권력의 주변이나 재계는 말할 것 없고 학문·교육·문화·언론까지도 포함한 이른바 문화계에서까지도 출판의 중요성은 항상 과소평가되고 있었으며, 지금 이 순간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언론자유는 출판자유로 완결된다

그런데, 귀하께서도 골머리를 앓고 계신 줄로 압니다만, 요즘 우리가 직면한 가장 급한 일인 사회의 민주화를 위하여 크게 두 가지 점이 강조되고 있음을 봅니다.

그 하나는 脫 권위주의요, 다른 하나는 언론의 자유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같은 ‘보통사람’의 식견으로 보아도 탈 권위주의와 언론자유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가 아닌가 합니다.

그렇다면 민주화는 탈 권위주의요, 언론자유 확보에서 비롯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언론의 자유란 오늘날 일반적으로 신문이나 방송의 자유만인 것처럼 이해하고 있음을 봅니다. 귀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근대 시민사회를 먼저 경험한 서구에서의 언론자유 역사는 먼저 출판의 자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문과 방송은 출판보다 늦



金京熙씨

게 등장한 언론의 후발 매체이기 때문입니다. 언론의 자유를 ‘Freedom of Press’라고 표현하는 구차스러운 구미의 예를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서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지난 70년대와 80년대 우리나라 언론자유 역사는 신문이나 방송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바로 출판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언론의 자유는 출판의 자유가 확보 되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천3백여 일의 중요성은 막중하다

1988년 2월 중순인 오늘의 시점에서 잠시 시야를 앞뒤로 넓혀보면, 이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저같은 필부도 느끼게 됩니다. 20세기는 이제 고작 4천3백20여 일밖에 남아 있지 않군요. 지난 1세기 남짓 동안 우리 겨레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반세기 가까이 국권을 잃었다는 것이 그 얼마나 큰 것이었나는 갈수록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한 ‘마이너스 유산’이 모두 이 국권상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작은 출판사를 경영하면서 몇몇 분야의 저자들과 일을 기획하고 마무리지를 때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크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보면 20세기의 남은 이 기간에, 지난 1세기 동안 우리들의 선배들이 했어야 할 일들, 즉 나라를 잃었기에 제대로 못한 몫까지 마무리지어야 할 중차대한 임무를 지고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귀하께서는 출판인들이 애국자인가라고 웃을는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출판이 갖는 특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식자층은, 극히 소수를 제외하고는, 출판이란 그저 종이에 글자를 찍어 인쇄·계본하는 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난 가을 정기국회에서 ‘출판사와 인쇄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상정 통과되기 직전, 그 독소적·반시대적 내용에 일부 출판인들의 신속하고도 정당한 투쟁에 의해 통과가 저지된 것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식자층, 특히 정치가들의 무식을 드러낸 좋은 한 예였습니다.

이야기가 빗나간 것 같습니다. 출판이 갖는 특성이란 다름이 아닙니다. 인류가 문자라는 것을 발명한 것이 바로 역사의 시작인 것이고, 문자의 기록은 바로 책의 원시적 형태이며, 모든 문화현상·자연현상은 책으로 기록되기 마련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사회의 모든 사실, 모든 현상은 출판으로 수렴되고 보존되며, 확산되고 전승됩니다.

출판현장은 현대문화의 제일선

따라서 이 나라 출판의 현장은 바로 넓은 의미에서 한국현대문화의 제일선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 모자람과 지나침, 거짓됨과 참됨, 외국의 좋은 점과 나쁜 점, 배워야 할 것과 배워서 안될 것을 우리 출판종사자들은 차분하고 조용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와 군사, 외교와 통상, 산업과 기술, 학

문과 예술, 역사와 제도, 종교와 교육, 인문과 자연, 그 어느 것 하나 출판과 직접, 간접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이 없기에 뜻있는 출판인은 정치가들이나 재계 인사들에 못지 않게, 아니 모든 문화계의 보통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라일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과거의 정치인 들께서는, 아마 현재의 귀하까지도 우리나라 출판의 오늘과 장래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을 기울여 오시지 않았지 않은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을 두고 보더라도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는 많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매우 두려워할 만한 측면도 작금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음을 봅니다.

‘산업입국’ ‘수출입국’ ‘과학기술입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우 온당한 목표요 구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지름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과학기술의 진흥일진대 그를 위해 일차적으로 동원되고 뒷받침하는 것은 과학교육이며, 이 과학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과학출판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2년 전 우리 출판계는 知的 소유권 문제가 미국으로부터 제기 되었을 때, 과학교육을 위해서는 물질특허는 용인하더라도 저작권조약 가입은 20세기까지는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를 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당국은 귀담아 듣지 않고 말았는데, 그 후 바로 이 문제는 오늘 우리 앞에 큰 짐으로 되고 있음을 봅니다.

또 ‘서해안시대’를 부르짖고 있습니다만, 중국과 통상교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사와 문화는 몰라도 되는 것이지요.

농어촌 현대화에도 출판이 기여

내친 김에 농어촌 근대화 문제만 하나 더 들지요.

어차피 ‘세계는 하나’라는 말도 있듯이, 우리 경제는 국내의 자족경제만으로는 살 수 없게 되었고 농어촌도 개방경제하에서 적응할 수밖에 없다면, 국제화시대의 농어촌을 다기화·과학화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리저리 선진국의 모범을 따라 배우고, 그리고 그러한 모범은 우리의 역사와 사회·풍토의 조건에 맞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예가 올바

농사에도 태풍이나 가뭄,

큰물이나 냉해가 없어야 풍년이 들듯이

출판문화 역시 맑은 날씨와

알맞게 내리쬐는 태양,

즉 자유분위기가 필요합니다.

결국, 출판문화의 발전이란 정치적으로

민주화되고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가운데,

문화에 관심을 갖는 그 시대의

수요자들이 책을 얼마나

아껴주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겠읍니다.

귀하께서 책을 좋아하는 대통령,

문화인의 존경을 받는 정치인,

앞을 내다보는 지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르게 소개되어야 하고 우리의 역사적·풍토적 조건이 과학적으로 밝혀져서 외국의 경험이 우리에게 맞게 개편되어 농어촌의 뜻있는 이들에게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작업에도 우리 출판인은 참여해야만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귀하의 재임기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4천3백20여 일의 중요한 일부를 차지하게 됩니다. 정치적·사회적 민주화와 경제의 선진화를 포함한 크고 작은 일들 이외에 우리 겨레의 지상과제도 아직 그대로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귀하께서도 유념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겨레의 통일을 위해서 이 기간은 매우 중요한 시기일 것 같습니다. 통일의 당위성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 실현방략의 안출을 위해서 온갖 슬기와 용기를 다 짜내야 할 것으로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에는 정치가나 전문 학자들은 물론 뜻있는 국민이 처한 입장에 따라 모두 참여해야 할 것이며, 우리 출판인도 출판을 통해 참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인류문명의 한 고비가 눈앞에 전개

그리고 이 20세기의 잔여기간은 우리 민족에게만 중요한 시기가 아닙니다. 전세계의

인류가 큰구비를 돌아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작게는 자본주의세계나 사회주의 세계의 이데올로기 대립이 한물가고 있음은 오는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가 예견되는 것으로도 알 수 있으며, 크게는 인류가 저질러 놓은 공해로 인해 인류 자신은 물론 지구상의 모든 생태계가 파괴되어가고 있어 이대로 방치해 두면 머지 않아 지구상의 생물이 멸망에까지 이를 수도 있다고 보는 견해가 점차 유력해지고 있는 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문제는 합리적으로 해결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해답을 찾아내야만 하는데, 그에 앞서 알맞은 목표와 방법을 도출해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한 방법론은 이 시대의 선지식, 즉 뛰어난 학자, 예술가, 이론가, 실천가들이 하는 일이고, 그들이 뿌린 씨를 키우는 것은 이 사회(또는 이 세계)이며, 그 씨가 씨방에서 잘 자라서 책이라는 형태로 싹이 트게(출산하게) 하는 것은 바로 출판의 기능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출판인들의 기능을 문화의 조산원 또는 산부인과의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출판행위는 하나의 푸나무에도 비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화를 수렴하는 출판문화 전체는 바로 온갖 꽃이 어우러져 색색의 자태와 갖가지 향기를 내뿜는 꽃밭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의 꽃나무가 제대로 자라기 위해서는 우선 기름진 땅이 필요합니다. 한국이라는, 아니 우리 겨레는 오랜 옛날부터 문화라는 꽃밭, 출판이라는 꽃나무를 가꾸기에 아주 적당한 토양이었읍니다. 일찌기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로 인류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 먼저 질 좋은 책의 문화를 가꾸어왔고, 인류가 발명한 문자 가운데 가장 우수하다는 ‘한글’을 지닌 민족이기도 합니다.

기름진 땅, 알맞은 수분, 淸明한 태양

하나의 꽃나무가 좋은 꽃이 되기 위해서는 적당한 물이 있어야 하듯 사회·경제적 풍요가 필요하고, 그 풍요가 기름진 땅에 적당히 고루 스며들어 씨앗이 싹터서 뿌리내리고 잎과 줄기를 제대로 키울 수 있어야 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문화의 씨앗, 출판의 씨앗인 학자와 예술가들이 제대로 연구하고 집필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연구 내지 사색할

수 있는 물질적 기초가 보장되어야 하며, 또 출판인들이 마음놓고 좋은 책을 기획하여 수년 또는 그보다 훨씬 많은 기간을 투자하기 위해서도 물질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출판계가 정부의 지원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중앙과 지방에 공공도서관을 대대적으로 확충·설립하여 좋은 책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수요를 늘려주는 것을 포함하여 정부가 관심만 가진다면 지원할 수 있는 길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총재로 계시는 정당에서는 지난 1985년 총선 때 대대적인 도서관설립을 공약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뒤 감감 무소식이군요. 적어도 전국 시·군·구에는 5년 안에 10만권 정도의 장서를 갖는 도서관이 들어서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나 무어니무어니 해도 출판문화가 만개하여 알찬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당한 온도, 즉 다사로운 햇볕입니다. 농사에도 태풍이나 가뭄, 큰물이나 냉해가 없어야 풍년이 들듯이 결국 출판문화야말로 맑은 날씨, 알맞게 내리쬐는 태양, 즉 자유분위기가 필요합니다. 출판의 前提인 학문이나 예술은 어느 의미에서 물질적 풍요보다 자유로운 공기, 즉 百家爭鳴하고 百花齊放하는 분위기가 더 필요합니다.

결국 출판문화는 정치적으로 민주화되고 경제적으로 번영하며, 문화에 관심을 갖는 그 시대의 수요자(독자)들이 아껴주는 데 있습니다. 어떤 집권자들은 지원이 지나쳐 간섭과 탄압으로 치닫는 경우를 우리는 내외의 역사에서 종종 보아오는 터입니다. 이는 당사자의 불행이요, 역사의 불행이었읍니다.

귀하께서는 종래의 정치지도자들과는 달리 지금부터라도 책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한 시대의 출판은 그 시대의 문화의 총화입니다. 출판인을 가까이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문화인들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하여 책을 좋아하는 대통령, 문화인들의 존경 받는 정치인, 앞을 내다보는 지도자가 되십시오. 그리하시면 귀하께서 공약하신 ‘보통사람의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례기자회견시에는 1년에 몇번만이라도 「출판저널」을 포함한 출판기자의 질문도 받아주신다면 멋이 있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